#1

천계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상서로운 구름이 높은 산봉우리에 걸려있었고, 그 위로는 곧 중추를 맞이하는 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이곳은 오직 고결하고 덕이 높은 자만이 밟을 수 있는 땅이었다. 천계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은 신선, 또는 천인이라고 불리며 윤회에서 해방되기 위해 수행을 거듭했다.
그런 고매한 신선들은 밤이 되면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었다. 실로 더러움을 모르는 백로들처럼, 욕망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는 범인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큼은 예외였다.

“마, 아…, 싫어…, 아파….”

열린 창문 사이로 울음 섞인 신음이 들려왔다. 채 죽이지 못한 소리는 제법 컸지만,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밤중에 천궁에 숨어드는 건 그야말로 무기 없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호화로운 침실에는 붉은 갓을 씌운 기름등이 여기저기 걸려있었다. 그리 환한 빛은 아니었지만,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끈적끈적한 꽃향기와 조화를 이뤘다.

“헉…! 아, 으응…, …!”

다시 한 번 침실 가득 신음소리가 퍼졌다. 커튼으로 가린 금색의 침대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비교적 느리게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신음 사이를 질척이는 마찰음이 메웠다. 찌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바람이 빠지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섞여들었지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상제시여…, 부, 부디…, 흣, 자비를….”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목소리가 신음 사이를 비집고 입술 밖으로 흘러나왔다. 분명 본래는 낮은 음색의 맑은 목소리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소리를 높인 탓에 다 쉬어버린 목소리를 쥐어짜내고 있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그의 엉덩이 틈새에 보기 좋게 꽂힌 각좆 때문이었다. 질 좋은 나무를 골라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보기 드문 명품이었다. 어린아이 팔뚝만 한 두께를 가진 그것은 피와 장액, 그리고 윤활유로 범벅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남자의 얼굴에 비하면 나은 축이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이는 도톰한 입술에선 몇 줄기의 타액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허억, 끅, 제, 제발…, 그만…….”

남자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그러나 각좇의 끝을 쥐고 있는 상제는 전혀 그만둘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벌린 가랑이 사이로 벌떡 솟아오른 남자의 성기 또한 상제와 같은 생각이었다. 한껏 부푼 성기의 끝에선 말간 액체가 흘러내려 평상 위에 깔아둔 목화 이불을 흥건히 적셨다.

상제는 제 손아귀에 붙잡은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곳을 자극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우는가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남자의 안에 박힌 각좇의 끄트머리가 왼쪽 내벽을 향하도록 움직인 뒤, 일부러 가장 예민한 부분을 꾹 눌러 문질렀다.

“학…! 아, 앗…! 상제… 시여…, 더는…, 흐응….”

남자의 허리가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크게 흘렸지만, 부끄러움 따위는 생각할 수 없었다. 몸을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의 쾌락이 밀물처럼 몰려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음란할 정도로 허리를 마구 흔들었다.

“이런 이런, 네 입보다는 밑구멍이 훨씬 더 솔직하구나. 그래, 이런 가짜 물건에도 기뻐하니, 진짜가 들어가면 어떨지 참으로 기대되는군.”

상제는 각좇으로 안쪽 깊숙한 곳을 한번 헤집더니 이내 한 번에 쑥 빼냈다.

“아흐으윽…!!”

제 안을 꽉 채웠던 단단한 이물질이 사라지자, 그제야 은은한 통증이 밀려왔다. 비릿한 수컷의 냄새가 거칠게 토해내는 숨과 섞여 공중에 흩어졌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더욱 커진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마치 보라는 듯 제 옆으로 툭 던져진 저 물건보다도 훨씬 크고 난폭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굳이 억지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미 스스로의 몸은 그 ‘흉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족히 한 척에 가까운, 발딱 서서는 어서 자신을 물어 삼키라고 성을 내는 그것이 남자의 너덜너덜하게 벌어진 입구에 닿았다.

“그래. 이제 네가 원하던 것을 주마.”

상제는 길고 하얀 손가락을 들어 남자의 등골을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 내려갔다. 차가운 감촉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 멈춘 곳, 지금부터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상처투성이의 입구가 벌름거렸다.

“넌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묵랑아.”

*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천계에도 새벽이 찾아왔다. 묵랑은 등에 닿는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에 눈을 서서히 떴다.

천궁에서도 가장 으슥한 곳, 손바닥 크기의 창문이 겨우 안을 밝히는 좁고 습한 방이었다. 어슴푸레한 새벽의 옅은 빛은 방 안을 밝히기엔 부족했지만, 묵랑은 그 정도로 충분했다.

그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켰다. 아직도 하반신에 통증이 남아있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어차피 도움을 기대해도 소용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묵랑은 잘 알고 있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지만 자신의 일은 확실히 해내야 했다. 묵랑은 잘 개켜둔 하얀 도복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비밀 통로를 지나 천궁의 뒤편으로 나갔다.

묵랑은 반짝이는 별빛에 의지해 개울로 향했다. 아직 뱃속에 남아있는 지난 정사의 흔적을 없애고, 희멀건한 얼룩이 묻어있는 몸을 닦는 손길은 제법 능숙했다.

천계의 옥수에 몸을 담근 묵랑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가인이었다. 지난밤의 엉망으로 흐트러진 모습도 상당히 볼만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가히 상제가 고이 숨겨두고 독차지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윤기가 흐르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대조적으로 새하얀 피부가 유난히 도드라졌다. 신장은 훤칠했고, 우아한 선의 몸매에는 과하지 않게 보기 좋은 근육이 자리 잡았다. 사내에게도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묵랑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날카로운 눈꼬리와 굳게 다문 입, 어찌 보면 언짢아 보이기도 했고, 슬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수려한 외모를 가진 자가 수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누구든 가던 길을 멈추고 사연을 물을 법했다. 그러나 묵랑에게 이유를 묻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천계에서 그는 마치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다.

한참을 지난밤의 흔적을 지우고 있자니,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묵랑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그의 귀는 듣기 힘든 험담을 주워담은 뒤였다.

“천궁의 옥수에 더러운 짐승이 몸을 담그다니, 당분간은 다른 곳으로 가야겠소.”

새벽 수행을 마치고 온 신선 두 사람이 마치 묵랑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소리도 낮추지 않고 그의 험담을 했다.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묵랑은 감히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

서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천계의 신선들은 묵랑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다가왔다가 이내 더럽다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새로 천계에 온 신선이나 도인들에게도 묵랑의 험담을 일삼았다.

신월의 밤마다 마셔야 하는 피 때문에 속세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다가 묵랑이 상제의 성노예라는 것은 천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 제대로 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상제는 자신만을 믿고 따르라고 일렀다. 사실 거스를 수도 없었다. 그렇게 묵랑은 천계에서 고립되었고, 설움을 꾹 삼켜 참아내는 법을 배웠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개울 밖으로 나온 뒤, 미리 가져온 검은 도복을 입었다. 탄탄한 근육이 그려내는 굵으면서도 섬세한 몸의 선은 도복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게다가 검은 허리띠를 매고 검을 차니, 너른 가슴과 대조적으로 가느다란 허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상제께서 기침하실 시간이군.’

묵랑은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천궁으로 향했다. 곧 이곳에 아침 수련을 마친 선인들이 몰려올 예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모욕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서 이 못을 떠나 안전한 상제의 곁으로 가고 싶었다.

*

상제는 천계를 이끄는 지도자였다. 거창한 직위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는 청년과 중년의 경계선에 놓인 듯한 젊고 빼어난 외모를 자랑했다. 게다가 주름 하나 없는 혈색 좋은 피부와 강인하게 보이는 굵은 눈썹, 칠 척의 키와 건장한 피부, 넓은 어깨는 뭇 사내들이 동경할 법도 했다. 그런 외관과는 다르게 누구도 그가 언제부터 천계를 이끌었는지 알지 못했다.

상제는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지도자의 위치였다. 그럼에도 천계의 신선들과 도인들은 모두 상제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비록 군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은 쓰지 않았지만, 그는 붉은 실로 수놓은 금색의 도포를 걸치고 옥관자가 달린 포망으로 긴 머리를 고정했다. 절제된 화려함과 당당한 풍채가 황제의 위엄마저 엿보이게 했다.

천계, 그리고 상제의 역할은 인간계를 정해진 운명대로 바르게 이끄는 것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생명을 가진 자는 운명이라는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와도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배역을 완수한 자는 비로소 해탈이라는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며, 그럴 때마다 상제는 도인들을 인간계로 보내 다시 바른 운명의 길로 이끌었다.

"천존이시여, 이번에는 염화국에서 불온한 조짐이 보이는구려."

샛별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른 시간부터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성유군이었다. 그는 별의 흐름을 읽어 운명을 점치고, 이를 상제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신선이었다. 성유군은 검은 두건을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상제조차 그의 맨 얼굴은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성유군은 거짓을 고하는 법이 없었다. 상제는 그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요즘 인간계에 이변이 많군. 천계에 남은 도인들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천계에는 신선, 그리고 도인이 존재했다. 신선은 인간들 중 덕이 높고 수행을 오래 하여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자였고, 도인은 인간이 아닌 짐승, 즉 영물이 수행하여 오르는 자리였다.

신선들 중 대다수는 도인을 같이 수행하는 자가 아닌, 그저 한낱 짐승으로 대했다. 거기다 자존심까지 높아 결코 더러운 일을 맡아 하려 들지 않았다. 상제는 천계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군주는 아니었다. 신선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도인들에게 인간 세계로 갈 것을 지시했다.

상제의 말대로 천계에는 지금 당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인이 없었다. 아니, 없다고 상제는 생각했다.

그렇기에 성유군의 대답을 들은 상제는 동요를 감출 수 없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았으니, 묵랑도인을 보내면 어떤지 여쭈오."

#2

“묵랑을…, 말이오?”

상제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만 말을 더듬고 말았다. 그는 타인 앞에서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묵랑을 인간계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상제에게 있어서 몹시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묵랑 역시 어엿한 도인임에도 임무를 보낼 자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 증거였다.

성유군은 상제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지만, 냉정하게 대답했다.

“대의를 생각하시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운명을 거스르면 아니 되오.”

그와 동시에 열린 문을 통해 묵랑이 들어왔다. 한 치의 흠도 잡을 수 없는 말끔한 모습으로, 허리에는 검을 한 자루 매고 있었다.

묵랑은 상제와 함께 있는 성유군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성유군은 그나마 묵랑에게 호의적인 편이었지만, 묵랑은 상제 이외의 다른 신선들과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경멸 가득한 시선은 묵랑을 한껏 위축되게 만들었다.

“천존이시여, 간밤엔 평안하셨습니까.”

묵랑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어 안부를 물었다. 상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천존’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지난 밤동안 상제를 애타게 입에 담으며 몸을 섞은 묵랑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래.”

“헌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힐끗힐끗 상제의 얼굴을 올려다보던 묵랑이 의아함에 물었다. 성유군의 눈에 비친 상제는 그저 잠시 동요할 뿐이었지만, 묵랑이 보기엔 그 정도가 아닌 모양이었다. 성유군은 묵랑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상제의 눈치를 보는지 몰랐다. 짚이는 곳은 있었지만, 그는 심증만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다.

“묵랑도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지금 인간계의 상황을 그대도 알고 있소이까?”

성유군은 어차피 상제에게선 기다리는 대답을 듣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질문의 화살을 묵랑에게로 돌렸다.

묵랑은 잠시 상제를 살피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일개 짐승이자 상제님의 호위일 뿐입니다. 인간계의 사정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보게, 성유군. 다른 방법은 없는가?”

상제가 물었다. 그러나 성유군은 이상할 정도로 완고했다.

“신선들은 인간계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오. 이 천계에서 감히 당신을 건드릴 사람은 없으니, 명목상의 호위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 것이오.”

상제는 아무리 고심해 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지고한 덕을 쌓아 천계의 지도자에 올랐다고 해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운명, 그것은 세상의 섭리였다. 이를 점치고 상제에게 알리는 성유군의 말은 섭리와도 같으니, 상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묵랑은 천 년동안 수련을 하여 도인이 되었지만, 본래는 늑대 영물이었다. 그만큼 독단으로 움직이는 일에는 적임자였다.

“알겠소. 묵랑을…, 보내도록 하지.”

“잘 생각하셨소. 그럼 그리 알고 있으리다.”

묵랑의 의견은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늘 있는 일이었다. 호의적인 성유군조차 이러니, 다른 신선들은 묵랑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다는 사실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상제의 명령이 곧 묵랑의 운명이었다.

겨우 원하는 대답을 얻은 성유군은 마치 연기처럼 스르륵, 하고 조용히 물러갔다. 묵랑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묵랑은 처음으로 인간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묵랑은 일말의 기대감도 갖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두려웠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로지 상제의 명령만이 중요했다.

[염화국의 황실에 숨어들어 나라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라. 최대한 조용하게,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 네 능력을 잘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묵랑은 축지법을 사용해 천계를 지탱하는 산맥을 내려와 염화국으로 향했다. 구름을 타고 쉬이 이동하는 신선들과 달리, 도인들은 인간계로 가기 위해서 축지법을 사용해야 했다.

묵랑의 모습을 눈으로 좇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만일 누군가 그를 본다면 지고의 아름다움이 실존한다며 칭송할 게 분명했다.

바람을 따라 나부끼는 머리카락은 마치 선녀의 베틀에 걸린 비단실 같았고, 펄럭이는 검은 도복을 따라 드러난 몸의 윤곽은 유려한 파도를 연상하게 했다. 그의 걸음은 나비처럼 가볍고, 화살처럼 빨랐다.

천 년간 갈고 닦은 도술 덕분에 묵랑은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인지 표정 없는 그의 머릿속에는 상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들이 맴돌았다.

[함부로 네 본모습을 보이지 마라. 현혹된 자는 무슨 허튼짓을 할지 모르니, 도술로 네 모습을 감추어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거라. 내 눈이,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허상이다. 너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이며, 넌 나를 떠나선 살 수 없다. 알겠느냐?]

상제의 목에 느슨하게 걸린 금 목걸이의 검은 곡옥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 하고 빛났다. 마치 일부러 보란 듯 옷깃 밖으로 빼낸 모양새였다. 그것은 묵랑에게 있어서 경고처럼 와닿았다.

‘네 운명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곡옥이 상제의 수중에 있는 한, 묵랑은 상제의 물건이었다.

묵랑도 잘 알고 있었다. 입으로는 싫다고 말하지만, 그의 몸은 밤마다 상제의 물건을 원했다. 상제와의 가학적인 정사야말로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는 상제의 노리개였다. 그 사실에 의구심을 품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상제는 묵랑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 그 때문에 묵랑은 다른 신선과 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상제의 옆 외에는 거처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위대하고 존엄한 상제조차 거스르지 못하는 운명을, 한낱 영물에 지나지 않은 묵랑이 거스를 수 있을 리 없었다. 묵랑은 순응했고,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천계에서 염화국의 도성까지는 상당히 멀었다. 하지만 묵랑은 축지법이라는 도술 덕분에 아직 해가 중천일 무렵, 도성에 도착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 천 년의 시간 동안, 묵랑은 인간계에 와본 적이 없었다. 상제는 신선이 아닌 인간들은 짐승과 똑같이 미개하며, 인간계는 위험이 끊이지 않으니 천계에서 운명대로 바르게 이끌어야만 한다고 입버릇처럼 묵랑에게 말했다.

그래서 묵랑은 인간을 믿지 않았고, 또한 스스로를 믿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추악하다고 한들, 짐승인 자신보다 더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동시에 신선들마저 저버린 자신을 인간들이 받아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았다. 마치 수라도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었다.

그러나 막상 도성 앞에 다다르자,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때마침 마차 무리들이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늘어서 있었다. 언뜻 움직이는 저들이 '인간'임에 틀림없었다.

묵랑은 잠시 두려움도 잊고, 저도 모르게 인간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때였다.

[다른 사람 앞에서 네 모습을 보이지 마라.]

상제의 경고가 마치 덫처럼 묵랑의 발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 호기심은 상제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집어넣었다.

대신 묵랑은 도술을 사용해 자신의 몸을 그림자에 숨겼다. 이동이 느리고, 그림자가 어느 정도 이어진 곳으로만 움직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볼 수 없는 일종의 은신술이었다.

그는 늘어선 마차의 그림자 속에 숨어 천천히 나아갔다. 인간들이 나누는 대화, 말에서 풍기는 건초 냄새,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궁금했다. 하지만 묵랑은 언제나처럼 마음 깊은 곳에 욕망을 꾹 억눌렀다.

[내 의지가 곧 네 의지이니, 스스로 마음을 품지 말거라.]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원한 적이 없었다. 의복이나 식사 등 생활에서도, 잠자리에서의 체위도 모두 상제가 정한 대로 따를 뿐이었다.

지금도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마음이 흔들린 게 분명했다. 묵랑은 잠시나마 허튼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질책했다.

그러나 도성에는 묵랑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들이 가득했다. 그곳은 확실히 한 대국의 중심지인 만큼 여러 면에서 놀라웠다. 천계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높은 누각이 즐비했고, 색색의 연과 등롱이 여기저기 걸려있었다. 사람들은 무명이나 목화가 아닌, 고운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좌판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여러 고기가 꼬치에 끼워진 채 행인들을 유혹했다.

묵랑은 시선을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걸음이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본래 늑대인 만큼 고기 냄새, 날것의 냄새에 예민했다. 천계에서는 육식을 금했고, 묵랑에게 있어서 좌판의 음식들은 선악과나 다름없었다.

[염화국은 아직 천 년 이상의 역사가 이어져야 하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빛이 흐려지고 있소. 이는 필시 황위의 존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황궁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오.]

성유군은 그리 말하며 상세한 내막을 설명한 뒤, 염화국의 태자인 휘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묵랑은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묵랑은 이곳저곳의 유혹에 이끌려 넋을 놓고 구경하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길 반복했다. 그림자에서 나오지는 않았기에 그를 본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말았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묵랑은 겨우 황궁 앞에 도착했다.

황궁은 도성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위용을 자랑했다. 끝없이 이어진 담벼락과 그 너머로 보이는 황금색 기와들이 염화국의 번영을 말해주고 있었다.

묵랑은 태자 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딱히 걱정하지 않았다. 궁 안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면 충분히 태자궁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임무가 처음이었고, 인간을 대해본 적이 없었으며,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상제가 만들어준 새장 안에서 그저 제한된 예법과 지식만을 익혔을 뿐이었다.

그래서 묵랑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이 낙원인지, 나락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었다.

#3

염화국은 대륙을 호령하는 삼대 국가 중 하나로, 대륙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염화국은 현재 호암제라는 이름의 황제가 30년이 넘도록 통치 중이었다.
그는 다섯 황자를 두었는데, 정실부인이었던 황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인 1황자, 휘가 태자 자리에 올라있었다.

휘는 여러모로 비범한 사람이었다. 우선 그는 염화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미남이었다. 육 척이 훌쩍 넘는 신장과 다부진 체격, 시원시원한 인상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게다가 그는 문무 모두 뛰어났다. 그를 가르친 태사가 불세출의 천재라고 칭송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휘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의 친어머니였던 황후는 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외가의 권력기반은 상당히 약했고, 설상가상으로 호암제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승상의 딸이 황제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휘의 입지는 약해졌고, 그가 유일하게 쥐고 있는 명목인 '정통성'도 위기를 맞았다.

휘의 성품은 갈수록 잔혹해졌다. 그는 아랫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았다. 태자궁에는 피비린내가 가시는 날이 없었고, 궁인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그뿐만 아니라, 휘는 남색을 가까이하기 시작했다. 염화국은 동성 간의 사랑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란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그 모습을 결코 남에게 보이는 일이 없었다.

그런 만큼, 유곽에서 온 남창들이 밤마다 태자궁을 드나든다는 소문은 황족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아직 호암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궁 내의 여론은 안 좋게만 흘러갔다.

*

묵랑은 그림자 속에 숨어 황궁 안까지 들어온 뒤, 마구간 옆의 사각지대에서 도술을 풀고 잠시 몸을 쉬었다.

그는 성유군이 말해준 휘의 내력에 대해 떠올렸다. 어떤 사람인지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염화국의 존속을 위해서라면, 딱히 황족 중 누가 황제가 되어도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묵랑조차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다. 애초에 호암제가 가만히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본래 황자 간의 암투는 전쟁에 비견될 정도로 치열했고, 아무리 정실부인과의

자식일지라도 암투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황제의 관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부정(父情)과는 상관이 없었다.

성유군이 불필요한 일에 나서거나 거짓을 말할 리는 없었다. 분명히 이 나라의 운명이 크게 뒤흔들리기에 자신을 내려보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묵랑은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정보를 모은 뒤에 태자궁으로 향하는 게 나을 듯하군.'

묵랑은 다시 한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곧 해가 저물 시간이었지만, 어둠이 깔리기까지 충분히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

*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아직 만월이 되기엔 조금 이지러진 달이 떠올랐다.

곧 중추절이 다가오기에 황궁 안도 제법 어수선했다. 그러나 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히려 중추절이 전혀 반갑지 않았다.

'황궁의 검문이 밤에도 심해지니, 당분간 나를 찾아오는 자들은 없겠군.'

그는 작게 실소를 흘리고는 주렴 너머의 달을 바라보았다. 쥐 죽은 듯 조용한 태자궁의 정원을 노란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달의 높이를 보니 아마 곧 자시의 종이 울릴 시간이었다. 늘 휘의 곁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늙은 환관인 장 내관도 침소로 돌아간 지 오래였다.

"어째서인지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는군. 뭐, 상관없나."

휘는 다시 시선을 내리고 읽다 만 죽간을 훑어보았다. 옆으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이 마치 밤의 장막처럼 그의 옆얼굴에 드리워졌다. 날카로운 턱선에서 눈을 들면 다소 도톰한 입술과 뾰족한 코, 그리고 흑진주처럼 까맣게 빛나는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새삼 수려한 미남이었다. 이 자가 폭군이라고 아무리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도,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의 넓은 어깨를 덮고 있던 초록색 도포가 바닥으로 스르륵, 흘러내렸다. 아무래도 다 읽은 죽간을 다시 둥글게 말다가 밀려난 모양이었다. 본래 이런 잡일은 그의 시중을 드는 궁인들의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괜히 소란을 만드느니 잠시 허리를 굽혀 스스로 줍는 것이 나았다.

“먼지가 묻었군. 내일 궁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휘는 도포를 한쪽 구석에 던져두고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놀라 제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태자궁 정원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자객인가 싶어 경계했지만, 자신을 향한 살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자객이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휘는 지금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유곽에는 그야말로 온갖 군상의 남자들이 있었다. 계집같은 남자부터 어리숙한 자, 당장이라도 적장의 목을 베어 올 기세의 대장부까지…. 그중에는 휘의 마음에 들어 여러 번 잠자리를 함께하고, 그가 직접 큰 상을 내린 자도 있었다.

그러나 달빛 아래 홀연히 나타난 저자는 달랐다. 마치 중추를 맞아 월궁항아가 내려온 듯 고매하고 신비로우면서도 사내다운 면모 또한 갖고 있었다. 같은 땅 위에 저런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있는 궁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격자무늬의 나무 살이 둘러진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늘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았다. 아마 궁 안이 어수선하니 다른 일에 잠시 불려간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휘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필시 유곽에서 숨겨두었던 인재를 보내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보란 듯이 이런 달 밝은 밤에 사내가 홀몸으로 자신을 찾아올 리 없었다.

휘는 한시라도 빨리 저자를 탐하고 싶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 자신을 취해달라며 제 발로 들어오고 있었다. 선선한 초가을의 바람이 불었지만, 휘는 마치 한여름과도 같은 열기를 느꼈다.

등잔을 밝히는 불이 일렁이며 그림자가 흔들렸다. 남자는 이제 발소리가 서서히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휘는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저자가 만들어내는 야한 신음을 듣고 싶었다. 자신 아래에 깔린 채 짓는 표정이 보고 싶었다. 하얀 속살을 더듬고, 음란한 골짜기에 자신의 것을 밀어 넣고 싶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었다. 한낱 본성에 휘둘리는 자신이 우스울 법도 했지만, 그의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대가 염화국의 태자, 휘인가?”

마침내 주렴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휘는 입꼬리를 올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법 당돌하군.’

아마 다른 이였다면 벌써 목이 날아가고도 남았겠지만, 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다. 저런 미인은 고분고분한 것보다 제 발밑에서 꺾는 것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어차피 그가 가지지 못할 남자는 없었다.

“그렇다.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와라.”

휘의 대답이 떨어지고 잠시 뒤, 맑은 구슬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등잔불의 빛 사이로 긴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이윽고 휘가 원하던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답군. 이런 자를 이제야 내놓다니, 쯧….’

휘의 물건은 이미 빳빳하게 고개를 내민 지 오래였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옷 안에서 볼록하게 솟은 그것은 볼썽사나운 얼룩마저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웃음 짓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언뜻 보기엔 전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휘는 아주 잠깐,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휘는 턱짓으로 아래를 가리켰다.

“뭘 망설이고 있지? 내가 원하는 바는 잘 알 테니, 한 번 해봐.”

#4

휘의 마음속을 모르는 묵랑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지금 떠오르는 감정을 무어라 정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불쾌함, 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았다. 당혹감이나 난처함과도 비슷했다.

묵랑은 상제의 새장 속에서만 지냈고, 상제 외의 다른 자와 몸을 섞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인간들의 기본적인 예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상제는 휘라는 인간에 대해 몰랐지만, 묵랑의 외모가 누군가의 이성을 잃게 만들기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까닭에 묵랑에게 본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휘는 묵랑이 주춤거리는 것마저 즐기는 모양새였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고, 음흉한 웃음을 띠며 묵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곤란해진 묵랑은 일단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묵랑의 마음에 생소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호기심이었다.

묵랑은 늑대 영물인 만큼 후각이 예민했다. 아마 인간이라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묵랑은 휘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냄새를 맡았다.

비릿한 짐승의 향이었다. 자신이 애써 감추던, 천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이 묵랑의 코끝을 찔렀다.

깊이 묻어두었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욕이라기보다 식욕에 가까웠다.

이 날것의 냄새가 궁금하다, 그러하니 탐하고 싶다.

그리 생각하자마자 묵랑의 몸은 저절로 움직였다. 어차피 상제의 명을 이행하려면 휘를 거스를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약간의 본능을 충족하는 정도면, 상제가 눈치를 챌 리도 없었다.

묵랑이 걸음을 내디딜수록 짐승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이성이 거의 마비된 묵랑은 한 치의 주저도 없이 휘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것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 상제와 자신의 성기 이외에는 다른 이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한 치 앞에서 고개를 발딱 세운 휘의 성기가 신기했다.

상제도 제법 큰 대물이었지만, 휘 역시 만만치 않았다. 거무스름한 성기는 묵랑의 두 손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컸다. 선단에서 나오는 말간 액은 묵랑을 계속 자극했고, 그는 결국 그것을 덥석 입에 물었다.

"…읏, 후우…."

생각보다 입에 가득 찬 성기가 괴로웠던 묵랑은 한 번 숨을 내뱉고 더욱 깊게 삼켰다. 목젖을 간질이는 귀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혔다. 그러나 동시에 목구멍을 가득 메운 휘의 체향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묵랑은 흥건히 젖은 입술로 정신없이 뿌리 깊은 곳을 꾹꾹 눌렀다.

"하…, 그래. 잘하는구나…."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성기가 묵랑의 입 안 가장 연한 곳을 스칠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났다. 휘에게는 마치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도 같았다. 쾌감이라는 파도가 차츰 몰려와 휘를 잠식했다.

묵랑은 굉장히 능숙했다. 그는 알사탕처럼 휘의 것을 입에 몇 번 굴리더니,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금세 찾아냈다. 본능만이 남은 묵랑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성기를 받치고는, 혀로 핥아 올리며 약한 그곳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조, 조금만 천천히…, 읏, 아, 아니다. 계속 해라."

밀려드는 쾌락을 전부 감당할 수 없었던 휘는 소리를 높여 신음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채고는 미간을 좁혔다. 이런 약한 소리를 내뱉다니, 전혀 자신답지 않았다.

묵랑은 눈동자만 굴려 그런 휘를 잠시 올려다보았다. 가늘게 뜬 눈, 그리 길지 않은 속눈썹 틈으로 휘를 올려다보는 모습에는 요사스러움마저 잔뜩 묻어났다.

"읍, 응, 흐으…. 하…."

묵랑은 이제 자신이 애무하는 상대가 상제인지,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타인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쭉 핥던 성기가 사랑스럽다는 듯 제 뺨에 비비더니 마치 자신의 음란한 구멍에 집어넣는 것처럼, 입 안 깊숙하게 삼켰다.

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얀빛이 터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단전 아래쪽에서 끊임없이 뇌성벽력이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곳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달도 구름 뒤로 숨었고, 풀벌레 우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흐르는 땀과 절정으로 치닫는 정사, 그리고 간간이 이어지는 신음소리가 태자궁을 가득 메웠다.

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 손을 들어 묵랑의 머리를 자신 쪽으로 꾹 눌렀다. 그제야 묵랑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하얗고 눅진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다. 묵랑은 알고 싶었던, 그리고 스스로 원했던 것을 얻었다. 그리고 동시에 배덕감이 치밀고 올라왔다.

휘의 손이 떨어지자마자 묵랑은 마치 엄한 것에라도 닿은 듯 재빨리 그에게서 떨어졌다.

"내, 내가 무슨…, 네 녀석, 도대체 왜 이런…."

수치심과 상제에 대한 죄의식이 올라왔다. 이 일을 상제가 당장 알아챌 리 없었지만, 묵랑은 당장이라도 벌이 내릴 것처럼 두려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흥분과 쾌감 또한 의식을 점령했다.

묵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휘를 노려보았다.

"제법이군. 도성에 이런 자가 아직 남아있었다니. 그래, 어디에서 왔지?"

휘는 몹시 만족스러웠다. 아직도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쾌감이 옅게 남아있었다. 저릿저릿한 느낌에 온몸이 전율하는 감각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휘는 묵랑과 그를 보낸 유곽에 큰 상을 내리려 했다. 어차피 이 자도 그것을 바라고 온 것이리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묵랑은 더욱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나는 천계에서 온 묵랑도인이다. 염화국이 위기에 처했다기에 높으신 분의 명을 받고 왔건만, 이게 무슨 일이지?"

묵랑은 진지하게 물었지만, 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이제 그런 재미없는 촌극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말해봐라. 어디서 왔고, 원하는 게 뭐지?"

아무래도 휘는 묵랑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묵랑은 잠시 고민하다가 도술을 사용해 자신의 모습을 지우고, 휘로 변신했다.

"이제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믿겠는가?"

휘는 크게 놀랐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물론 휘도 천계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 세간에는 내가 천계의 문 앞까지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대륙 가운데에 위치한 험준한 산의 전설은 유명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허상의 이야기, 혹은 휘와 관계없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난데없이 도술을 부리는 자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자신이 천계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놀라웠지만, 대체 그런 자가 어째서 난데없이 찾아와 자신의 성기를 탐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에서 온 자라더니, 제법 세속적이군.”

휘의 말에 묵랑은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수행의 기본자세를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었고, 상제와 자신과의 관계는 더욱 밝히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묵랑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염화국이 존망이 걸린 위기에 처했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지? 내막이라도 물으려고 찾아왔건만, 묻지 않아도 될 듯하다.”

물론 그는 진심으로 발걸음을 돌릴 생각이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운 발악이었다.

휘는 묵랑의 말을 단번에 이해했다. 그리고 그가 단순한 유곽의 남창이 아님을 알았다.

염화국의 위기는 아무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황제인 호암제조차 모를 것이 분명했다. 알았다면 분명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테니 말이었다.

‘이판사판이다. 이 자가 첩자라면 나는 죽을 것이고, 진실로 천계에서 온 자라면 드디어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겠지.’

휘는 그리 생각하고는 옷을 단정히 고쳐 입었다.

“앉아라. 나를 도울 자라면 이야기하지 못할 일도 아니지.”

#5

아무리 방탕하고 음란해도, 일단 휘는 태자였다. 그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았고, 궁중의 예법은 이미 통달한 지 오래였다.

묵랑은 능글맞은 호색한에서 위엄이 서린 태자로 태도를 바꾼 휘가 신기했지만, 그가 권한대로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서 있는 것이 편하니, 그대로 말해도 좋다.”

묵랑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그는 금방이라도 등잔불이 만들어내는 벽의 그림자에 녹아들 것 같았다. 조금 전 자신의 물건을 핥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았다. 휘는 묵랑과 똑같은 신기함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네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염화국은 앞으로 천 년 이상 존속할 운명이지만, 지금 그 명운에 위기가 처했다는 것. 그리고 태자인 휘를 도우면 그 운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아, 태자가 상당히 문란하다는 정보도 방금 알게 되었군.”

“남 말할 처지인가?”

휘의 말에 묵랑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들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묵랑은 속으로 조용히 불만을 내비쳤다. 단지 표정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에, 휘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뭐, 그건 넘어가기로 하지. 네 말대로다. 다른 건 몰라도 위기임에는 틀림없지.”

휘는 이미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묵랑을 잠시 응시했다. 지금에 와서 봐도 범상치 않은 미모였다. 차라리 천계에서 왔다고 하니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오해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휘는 후회하지 않았다. 묵랑에 대한 소유욕 또한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더욱 묵랑을 가지고 싶어졌다.

이 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휘는 그렇게 결심했다.

“네가 그렇게 조사를 했다면 염화국의 정세 정도는 알고 있겠지?”

“태자가 아닌 2황자가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것 말인가?”

“알고는 있군. 네 말대로 염화국은 지금 승상을 배후에 둔 2황자가 황제 다음의 권력을 잡고 있지. 게다가 5황자…, 정확히는 5황자의 모친까지 얽혀드는 덕분에 내 꼴이 말이 아니다.”

휘는 5황자의 모친이 수유국에서 친교의 의미로 보낸 거상의 딸이라는 점과, 2황자는 5황자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손을 잡았다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잠자코 듣고 있던 묵랑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단순한 황위 싸움이 아닌 모양이군. 황제 자리에 누가 앉든 염화국의 존속과는 별 상관이 없을 텐데, 성유군께서 그리 말씀하신 걸 보면 말이야.”

“2황자가 황위에 욕심이 있는 것뿐이면 차라리 다행이지. 그 녀석은 이 나라를 설야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휘는 그리 말하면서 분을 못 이겨 표정을 구겼다. 묵랑은 그런 그를 잠자코 지켜보았다.

겨우 본론으로 접어들었지만, 묵랑은 휘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휘에게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조금 전 일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자신을 희롱한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불쾌하더라도 오해였다며 넘길 수 있었고, 어쨌든 휘가 강제하지도 않았건만 말려든 자신의 책임도 있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묵랑은 휘에게서 상제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휘의 성격은 차치하고라도, 그는 태자로서는 손색이 없었다. 풍채도 좋았고, 인물 또한 번지르르했다. 천하를 호령하는 일국의 황제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완벽한 존재는 오로지 상제뿐이어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 했다.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휘를 돕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인간 따위, 염화국의 운명 따위는 묵랑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좋았다.

‘하지만 그분의 사명을 내 하찮은 감정으로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상제의 목에는 검은 곡옥이 걸려있었다. 득도한 영물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곡옥이었다. 그것을 상제가 가지고 있다는 건 곧 자신이 의지할 곳은 그의 옆뿐이라는 사실과도 같았다.

“이봐,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문득 휘가 묵랑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애썼지만, 묵랑의 외모를 연신 뜯어보던 휘의 눈썰미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듣고 있다. 설야국이 대륙 통일을 위해 수유국과 손을 잡으려 하는 동시에 염화국을 노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 염화국 역시 대륙 통일을 노리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국가의 존망이 먼저겠지. 그러니 2황자가 설야국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서 폐하께 보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염화국은 영토 대부분이 광활한 평야였고, 설야국은 반대로 험준한 산이 주류를 이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늘 노리고 있었다. 설야국은 염화국처럼 풍족한 식량을 원했고, 염화국은 설야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원을 원했다.

게다가 동쪽 해안 지역의 수유국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비록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업을 중시하는 국가인 만큼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했다. 그리고 거의 쇄국 상태나 다름없는 두 나라와는 달리 타 대륙과도 교류하고 있었다. 어쩌면 미지의 기술을 습득했거나 타 대륙의 용병을 고용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설야국은 수유국과 손을 잡았다. 물론 염화국도 수유국과 물밑 교섭을 계속했지만, 누구의 편이 될지는 온전히 수유국의 마음이었다. 아직 대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기에 그 사실을 염화국에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휘도 2황자가 얽혀있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다.

설야국은 당장 황제를 없애는 것보다도 뒤를 이어받을 태자를 우선 없애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휘는 그것 또한 숨김없이 묵랑에게 이야기했다.

“나라의 존망을 논하려면 네 안전이 우선 아닌가. 태자궁의 경비가 상당히 허술하던데, 어찌된 일이지?”

“자객을 보내기 위해 2황자가 조작한 거다. 괜히 이의를 제기하면 그 녀석을 의심하는 게 드러나고 말지. 그래서 자객은 내가 조용히 처리하고 있지.”

휘는 자객이 우연히 태자궁의 병사에게 들켜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휘 역시 나름대로 능력이 뛰어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묵랑의 눈에는 영 못 미덥게만 보였다.

“요점만 말하면, 2황자가 설야국과 내통한다는 증거만 잡아주면 되는군. 어려울 것 없겠어.”

묵랑은 가장 쓰고 싶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차라리 일을 빨리 처리한 후 천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도술을 사용해 내 모습을 바꾸겠다. 당분간 네 행세를 하도록 하지. 네 손발이 자유로워야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겠나."

묵랑은 그리 내뱉으면서도 휘에게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도 묵랑의 제안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아무래도 자신보다는 휘가 움직이는 편이 2황자가 꾸미는 일의 증거를 찾기 수월했다. 그러나 휘가 움직이는 것을 알면 2황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증거를 숨기거나, 최악의 경우 휘를 없애기 위해 작당모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 묵랑은 자신이 일종의 그림자무사로서 휘의 행세를 하고, 휘는 궁인의 모습이 되어 증거를 모아오게 할 셈이었다.

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묵랑을 재밌다는 듯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그러는 것이 낫겠군."

묵랑은 환술을 사용해 휘의 모습을 궁인들로 바꿔주겠다고 덧붙였다. 휘는 상관없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잠시나마 궁인인 척 하며 연기할 수 있었다.

멀리서 인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곧 궁인들이 일어나 일과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결국 밤을 지새운 꼴이 되었다. 휘는 약간의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묵랑에 대한 소유욕과 희열이 휘의 마음에서 꿈틀거리니, 그를 취할 생각이 앞섰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전세를 역전할 힘을 원했었다.

포기하고 싶던 적도, 무력한 자신을 탓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휘는 끈질기게 기다렸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게다가 이런 미인까지 제 발로 휘를 찾아오니, 휘는 아직 운명이 자신의 편임을 알았다.

#6

날이 완전히 밝기 전, 휘는 자신을 모시던 늙은 환관 하나를 죽였다. 그자는 궁인들 중에서도 제법 높은 직책으로, 항상 휘의 가까이서 시중을 들던 자였다.

그런 만큼, 동선을 미리 파악해 으슥한 곳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일을 빈틈없이 처리했다. 시체까지 찾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휘는 태자궁으로 돌아왔다.

심기를 거스르는 궁인들이야 자주 숙청하곤 했지만, 굳이 이 자로 고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 휘는 이전부터 태자궁에 2황자와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자궁에 배정받아 마치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섬기던 이 환관이 용의자였다. 이 자의 두겁을 쓰면 2황자와의 접선이 더욱 수월할 거란 계산이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휘가 태자궁으로 돌아오자 묵랑이 던진 첫 마디였다. 휘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묵랑을 정면으로 응시하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차라리 네 원래 모습이 보기 좋다만, 할 수 없나."

휘는 자신의 외모에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거울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묵랑은 혀를 쯧, 하고 찼다.

그리고 휘가 눈을 한 번 깜박였을 때, 그의 앞에 자신이 반한 묵랑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야. 너와 나에게는 본래의 모습이 보이도록 해주지. 이 이상 요구하지 마라."

묵랑은 자신의 도술이 휘와 자신, 두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도록 다시금 도술을 폈다. 그는 이제 됐냐는 뜻을 담은 눈빛을 보낸 뒤, 몸을 돌려 죽간과 등잔이 놓인 탁자로 다가갔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묵랑이 난데없이 허리를 숙이자 휘가 놀라 물었다. 묵랑은 뒤조차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휘의 옷가지를 줍기 시작했다.

"지난밤 벌인 흔적들을 없애고 있지 않은가."

"대체 어느 황족이 아무 데서나 허리를 숙인단 말이냐!"

휘는 저도 모르게 궁인들을 대하듯 호통을 쳤다. 아마 묵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벌인 일이라

면 진작 볼기짝을 때렸을 일이었다. 그는 무능하거나 모자란 사람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했다.

“그런 법도 있었군. 그럼 이건 어쩔 셈이지?”

“그게 바로 궁인들이 할 일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마침 휘의 호통소리를 듣고 궁녀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마도 태자가 노한 것이 아닌, 늙은 환관의 노성으로 들렸을 터였다. 휘가 모습을 뒤집어쓴 장씨 성을 가진 늙은 환관은 궁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 천한 허드렛일 궁녀라면 충분히 부릴 수 있었다.

그것이 휘가 일부러 이 자를 골라 죽인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대의를 위한다는 이유라 해도 결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연기고, 휘는 여전히 태자였다. 그는 그걸 모두 인지하더라도 아무에게나 허리를 숙일 수 없었다. 불쾌해질 만한 상황은 가급적 덜 만드는 편이 좋았다.

지금도 그랬다. 궁녀들은 잘못을 사죄하며 자신이 남긴 흔적을 재빠르게 지워나갔다. 물론 자신보다는 태자 모습을 한 묵랑에게 사죄하는 것이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휘는 묵랑이 못미더웠다.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무리 묵랑에게 반했다지만, 쓸모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지켜보기로 했다. 만일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있었다.

*

묵랑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휩쓸려 다녔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수라도에 부는 돌풍과도 같았다.

태자궁의 하루는 생각 외로 단조로웠다. 찾아오는 객들도 없었고, 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도 없었다. 천계의 지도자인 상제마저도 늘 무언가를 분주히 하고 있었건만,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의 나라에서 황족이 이리 한가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만히 앉아서 태자 흉내를 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움직이면, 어디선가 궁인들이 나타나 일거리를 모두 가져갔다.

천계에는 신분 제도가 없었다. 아무리 콧대 높은 신선들도 제 앞가림은 스스로 했고, 영물들을 무시할지언정 잡일을 하는 노예로 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묵랑도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이것도 2황자인지 하는 그 자의 짓인가….’

묵랑은 그리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저 휘가 증거를 찾아올 때까지 그의 대역을 맡아 해야 했다.

휘, 다른 이명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작자와 너무 안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것은 만물을 비추는 저 찬란한 태양을 칭송할 때 쓰는 단어였다. 휘는…, 굳이 말하자면 모든 걸 불살라버리는 업화의 불길 같았다.

묵랑은 휘가 싫었다. 상제의 명만 아니었다면 이런 짓까지 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터였다.

그는 휘에게서 상제를 겹쳐 보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온 존재와 찰나의 미물인 저 무뢰한을 동일시하는 것은 상제에 대한 모욕 같았다.

물론 상제와 생김새가 똑같지는 않았다. 그저 수려한 얼굴과 기품마저 느껴지는 풍채, 자신에게 명령하는 탁 가라앉은 목소리가 비슷한 정도였다.

그리고 묵랑 안을 가득 채웠던 단단하고 커다란 그 물건도….

지난밤의 일이 떠오르자 묵랑은 애써 생각을 돌리려 했다. 상제에 대한 죄책감이 고개를 내밀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이란 본디 하지 않으려 들면 더욱 떠오르는 법이었다.

‘그래. 확실히 그분과는 다른 면이 있었지.’

어젯밤 탐한 물건의 크기며 생김새, 그리고 체향까지 머릿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다. 간신히 달아나려는 이성을 붙잡고 있지만, 이젠 환각마저 보일 지경이었다.

묵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고 싶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묵랑은 슬쩍 아랫도리를 내려다보고는 자신의 것을 조심스럽게 잡아 꺼냈다.

그의 성기도 결코 작지는 않았다. 그러나 묵랑은 어쩐지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일단 아직도 붉은 혈색이 선명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욕망을 받아주기만 했을 뿐, 자신의 욕망을 해소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도 역시 자신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다.

묵랑은 아직 반 정도밖에 서지 않은 성기에 손을 가져갔다. 부드러운 살의 감촉과 달궈진 열기가 손바닥을 가득 메웠다.

그는 다른 손도 뻗어 고환과 아래쪽 기둥을 감쌌다. 이제 와서 이래도 되는가, 하고 망설임이 생겼지만, 손은 이미 제멋대로 움직였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고개를 내밀 듯 내밀지 않던 귀두는 이제 빳빳하게 서서 그의 손을 더럽히고 있었다.

"으, 흐윽…. 학…."

묵랑은 무심코 신음을 흘리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격자무늬로 얽힌 나무살 너머, 불투명한 창호지로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했지만 인기척은 나지 않았다. 기분 탓임이 분명했다.

느려도 너무 느렸다. 자신이 범해졌을 때 느낀 거대한 쾌락의 파도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아주 조금씩, 애태우며 끓는 것이 못내 답답했다.

꽉 깨문 입술에서 옅은 피 맛이 났다. 묵랑은 고개를 젖히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천장의 나무를 깎아 새긴 봉황의 모습이 보였다가 희미하게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제는 두 손에 가득 찬 성기는 마치 하늘에 닿을 듯 고개를 치켜들었다.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래도 아직,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지 않았다. 여전히 소리를 참으면서도 묵랑은 손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7

한편, 휘 역시 제법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래도 태자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부 알고 있는 데다, 궂은일을 할 정도로 낮은 직책이 아니었기에 모든 게 수월하게 흘러갔다.

처음에는 궁인들의 달라진 태도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그들 위에 군림하는 건 똑같았다. 휘는 대부분의 시간을 궁인들의 감시에 쓰고, 그들이 실수하면 더욱 엄하게 질책했다.

아직까지는 태자 전하, 즉 묵랑의 언행이 이상하다는 소문은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휘는 묵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엿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비웠다.

태자궁 본채는 묘할 정도로 적막이 감돌고 있었다. 아직 궁녀들이 올 시간이 아니긴 했지만, 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슬그머니 본채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소문대로 무언가 소동이 일어난 흔적은 없었다.

휘는 우선 마음을 놓은 뒤, 마치 시중을 들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하, 아아…, 읏, 윽…!"

그는 안에서 새어 나오는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한껏 소리를 죽이느라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휘의 귀는 이런 소리에 예민했다.

'아닌 척 점잖은 다 빼더니, 부뚜막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군.'

휘에게는 지금 상황이 매우 흥미로웠다. 묵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저러는지 궁금했다. 만약 자신이 지금 나타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궁금했다.

여태 휘의 앞에서 자위를 행하던 남창들은 많았다. 그러나 묵랑은 그들과는 다른 재미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휘는 그가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주렴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치는 가운데, 휘가 모습을 드러냈다. 묵랑이 그 소리를 놓칠 리 없었고, 휘 역시 몰래 다가갈 생각은 없었다. 그가 나타나자, 묵랑은 당혹감에 젖은 표정으로 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

단말마 같은 신음과 함께 희멀건 정액이 사정없이 흘러나왔다. 그와 동시에 묵랑의 얼굴도 수

치심에 물들어갔다.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에 대한 원망과, 휘에게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는 생각이 뒤섞였다. 묵랑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턱 아래에 고인 땀방울들이 유난히 서늘했다.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듬을 생각도, 엉망이 된 손을 닦을 생각도 채 하지 못했다.

그런 모습이 휘를 더욱 자극했다. 그의 안에서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가학심이 맹렬히 불타올랐다.

"천계의 도인께서 속세의 미물처럼 이래도 괜찮은지?"

휘는 다 알면서도 일부러 비꼬아 물었다. 묵랑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 섬뜩하기만 했다. 하지만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아니, 이건, 그…."

묵랑은 그래도 무어라 말을 꺼내보려다 그만 혀를 강하게 씹고 말았다. 상처가 크게 났는지 목구멍까지 피냄새가 번졌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묵랑을 보며, 휘는 무슨 일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성큼성큼 묵랑에게 다가가더니 대뜸 거칠게 입술을 맞댔다.

"…!"

묵랑은 당황해 휘를 밀어내려 했다. 허나 이렇게 힘이 좋은 인간도 보기 드물었다. 묵랑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다면 무기를 들고 상대를 없앴을 텐데, 임무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휘의 가슴을 때리며 떨어지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뿐이었다. 묵랑은 집요하게 입술을 열라며 얽히려 드는 혀에 저항하며 마치 부서지라는 듯이 휘를 밀어내려 했다.

"그렇게 내가 싫은가? 그럼 소원대로 내가 보이지 않게 해주지."

숨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휘가 속삭였다. 그리고 묵랑이 반격을 가하기 전에 한 손으로 묵랑의 두 팔을 뒤로 돌려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허리띠를 풀었다. 부드러운 재질의 검은 허리띠를 묵랑의 팔에 감아 묶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많이 해본 솜씨였다.

"이게 무슨 짓이지? 어서 풀어!"

묵랑이 혀의 통증을 잊고 휘를 향해 노성을 뱉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말들이 휘의 가학심을 더욱 부추긴다는 사실을 몰랐다. 휘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묵랑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그의 눈을 가렸다.

“네 바람대로 해주었다.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

“무슨….”

휘는 묵랑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묵랑의 바지를 완전히 벗겨내고 허리를 잡아세웠다.

묵랑은 미칠 지경이었다. 손도 쓰지 못하는 데다, 시야는 완전히 막혀버렸다. 거기에 더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자,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살에 닿는 공기의 온도, 허리에 닿는 휘의 손길, 그 모든 게 마치 보이는 것 이상으로 생생했다. 이미 한 번 일을 마친 묵랑의 성기는 다시 우뚝 서고 말았다. 동시에 바닥에 눌린 그의 유두가 점점 빳빳해졌다.

온몸에 불길이라도 번지는 마냥 소름이 돋았다. 누가 바늘로 연신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묵랑은 자존심도 버리고 휘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이거 놔. 하지 마….”

눈을 가린 천이 조금씩 젖어 들었다. 그만큼 묵랑은 필사적이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피가 섞인 맑은 액이 눈물을 대신하는 것처럼 흘러 바닥에 고였다.

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다. 저 고고한 미인이 자신에게 엉덩이를 치켜들고선 울며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는 묵랑의 말이 휘에게는 어서 해달라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일부러 묵랑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는 한껏 양옆으로 당겨 벌렸다. 벌름거리는 입구가 어서 휘의 것을 넣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적어도 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휘는 자신의 성기 끝을 묵랑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깊게 파인 골 사이로 닿은 물건이 무언지 알아채자, 묵랑은 겁에 질렸다. 휘는 그런 반응을 즐기기 위해 넣을 듯 넣지 않으며 귀두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저리 치워! 어서 이걸 풀란 말이다!”

묵랑은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큰 저항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휘를 자극하는 꼴만 되고 말았다.

“네가 그리 원한다면 상을 내려야겠지. 아직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즐기자꾸나.”

휘는 빈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 해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 안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저녁처럼 어둑어둑했다. 식사를 가져올 궁녀는 아직 올 때가 아니었다. 휘는 모든 것을 계산 아래에 두었고, 묵랑만 그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휘는 일부러 묵랑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네 임무를 생각하면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궁인들이 오면 늙은 환관이 태자를 범하는 장면을 보겠지. 그럼 태자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누가 이득을 볼까?”

물론 그건 휘가 가장 바라지 않는 결과였다. 그러나 휘는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는 궁인들이 결코 이곳에 와서 지금의 상황을 볼 리가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묵랑이 ‘임무’라는 것에 지나지게 집착한다는 점이었다.

예상대로 묵랑은 여전히 싫어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쯤되니 휘는 대체 상제가 누구이며, 묵랑이 왜 이렇게까지 꼼짝을 못하는지 알고 싶었다. 이런 미인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은 눈앞의 여흥이 더욱 중요했다. 휘는 장난을 멈추고, 덕분에 한껏 달궈진 그것을 묵랑의 안에 쑥 집어넣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물러남도 없었다.

#8

묵랑은 너무 놀라고 아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앞이 가려진 탓에 예민해진 것은 내벽 또한 마찬가지였다. 휘의 성기 모양이 생생하게 느껴졌고, 입구가 찢어져 생긴 고통은 배가 되었다.

풀어주지도 않았고 윤활제를 바르지도 않았으니 제대로 들어갈 리 만무했다. 휘는 묵랑의 허리를 부술 것처럼 꽉 움켜쥐고 억지로 끝까지 밀어 넣었다.

묵랑은 차라리 죽고 싶었다. 앞이라도 보인다면, 손이라도 자유롭다면 이 정도는 아닐지 몰랐다. 소리라도 마음껏 낼 수 있다면 한결 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묵랑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묵랑은 그저 끅끅거리는 신음소리만 겨우 냈다. 인내심이 강하다고 자부했던 지난날들이 무색하게만 느껴졌다.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은 자는 상제뿐이었다. 묵랑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휘에 대한 온갖 욕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맴돌았다.

휘는 그 나름대로 위기였다. 처음에는 묵랑을 기선제압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묵랑의 내벽은 휘의 성기를 꾹꾹 누르며 압박했고, 휘는 여유를 점점 잃어갔다.

휘는 묵랑이 더욱 괴로워할 것을 알면서도 허리를 거칠게 움직였다. 살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사방을 가득 메웠다. 묵랑은 제발 천천히 움직이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걷잡을 수 없이 소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자니, 휘가 움직임에 맞춰 내뱉는, 뚝뚝 끊어진 신음이 들렸다.

“흐…, 후우, 대단하잖나. 영물이 아니라 요물이었던 모양이군.”

묵랑의 안이 조금씩 젖어가자, 뚝뚝 끊어졌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고통이 다소 사라지자,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이 묵랑을 덮쳤다.

어제의 일은 실수였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실수라 하기엔 너무 큰일이었다. 상제가 알면 무어라 할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만 했다. 묵랑은 오롯이 상제의 소유물이었다. 이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그 사실에 한 치의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묵랑의 몸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고통이 옅어지자 그 자리를 점점 쾌감이 메워갔다. 만지지도 않았건만, 묵랑은 당장이라도 사정할 것만 같아 더욱 괴로웠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만…. 더 이상은….”

제 안에 상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들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묵랑은 휘를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상제는 언제나 자신이 사정하기 전에 묵랑이 먼저 가는 것을 금지해 왔었다. 그래서 지금도 묵랑은 무의식중에 휘보다 먼저 사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성이 마비되다시피 한 머릿속은 이제 휘에게 빨리 끝내줄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

한계까지 늘어나 너덜너덜하게 변한 묵랑의 내부는 마지막 발악처럼 휘의 성기를 강하게 물고는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들였다. 끈적한 액체가 질퍽이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이윽고 묵랑의 허벅지를 타고 하얀 점액질이 후두둑, 흘러내렸다. 휘는 일부러 묵랑의 허리를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주 깊숙한 곳에 사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어찌나 많은 양의 정액을 쏟아낸 것인지, 묵랑의 배 속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흘러내린 뜨거운 액은 또다시 바닥을 잔뜩 더럽히고 말았다.

묵랑은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참을 수 없이 뜨겁고 아픈 동시에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묵랑의 몸은 참고 참았던 욕구를 밖으로 분출했다.

“으흑…, 아, 흣….”

묵랑은 숨죽여 울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안을 가득 메웠던 것이 아주 느리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묵랑의 머릿속은 검게 물들었다.

*

휘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에 제법 만족스러웠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며 제발 넣어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었다. 자신 아래에서 울고불고 놔달라고 소리치는 자를 함락시키는 것만이 그를 만족하게 했다.

‘이젠 평범한 놈으로는 안 되겠군. 이 자를 노리개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어.’

휘는 상제가 어떤 능력을 가진, 어느 위치의 인물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은 상대가 신선일지라도 뺏어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그는 태연하게 궁녀를 불러 태자 전하께서 몸이 편치 않으니 오늘은 누구도 본채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궁녀는 장 환관의 모습을 한 휘의 말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덕분에 그는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묵랑과 단둘이 남을 수 있었다.

물론 묵랑은 기절한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휘는 그를 속박하던 허리끈을 모두 풀고

침상으로 옮겨주었지만, 그뿐이었다. 일부러 깨우거나 하지는 않았다.

휘는 읽다만 죽간을 마저 읽어가며 이따금 묵랑을 힐끔힐끔 바라봤다. 걱정이 되거나 미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묵랑이 지독하게 못미더웠다.

휘는 묵랑이 노리개로서는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자신과 염화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동업자로서는 전혀 아니었다. 이 자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을지 감조차 오지 않았다.

고작 하루를 같이 보낸 사이였지만, 휘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묵랑이 실력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발목을 잘라 별궁에 가둬버릴 생각이었다.

'목을 자르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게다.'

깊이 잠든 묵랑의 얼굴을 바라보던 휘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기에 일부러 고개를 홱 돌렸다. 묵랑은 무슨 꿈을 꾸는 것인지 이따금 인상을 찌푸렸다. 휘는 본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치가 답답한지 알 수가 없었다.

잘 생각해보니 곧 2황자 측에서 누군가를 보낼 때였다. 자객이 일정한 주기를 지키며 찾아올리는 만무했지만, 근래에는 사건이 통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 휘가 방심하도록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앞으로 2, 3일…. 지켜보도록 해야겠군.'

휘는 읽던 죽간을 다시 잘 말아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는 등불을 끈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채를 나왔다.

*

다음 날, 휘는 인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묵랑을 찾았다. 어차피 금대야에 세숫물을 받아 미리 가져다 놓는 것 또한 궁인들의 일이었다. 그러니 휘가 지금 찾아가도 이상하게 볼 사람은 없었다.

묵랑은 일어나 있었다. 꺼두었던 등잔에는 약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침상 위의 침구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태자 전하, 일찍 기침하셨사옵니까."

휘는 일부러 묵랑을 놀리듯 말을 걸었다. 그러나 묵랑은 전날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휘가 마치 끔찍한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를 떨며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가져온 빈 대야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어디까지나 눈속임용이

었을 뿐, 진심으로 묵랑의 시중을 들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사흘 정도 이곳에서 나오지 마라. 미리 손을 써서 다른 궁인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 두지. 괜한 소동 일으키기 싫으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묵랑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는 휘의 아랫사람이 아니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아쉬워서 매달려야 하는 건 바로 휘였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이 끌려다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묵랑은 그저 상제를 위해 모든 모욕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없이 비참하기만 했다.

묵랑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상제에게 버려지는 것이었다.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은 오직 상제뿐이었다. 그가 검은 곡옥을 가지고 간 것부터 전부 운명이었다.

#9

묵랑도 휘의 의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애초에 휘도 숨기려 애쓰지 않았고, 묵랑은 늘 상제의 기분을 살폈기 때문에 눈치가 제법 빨랐다.

자신도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휘는 오죽하겠는가. 이것이 묵랑의 생각이었다.

묵랑이 천계로 올라오고 난 뒤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보통 도인이라면 너덧 번은 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계에서 임무를 수행했을 시간이었다. 그런 세월 동안 묵랑은 계속 상제의 궁에 감금되어 성노예처럼 살아왔다.

그는 지금 모든 상황이 낯설었다. 일말의 자존심과 상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명령받은 임무만을 생각해 버티고 있었다.

묵랑은 무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검술은 어지간한 인간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으며, 여차하면 쓸 수 있는 도술도 있었다. 때문에 자객이든 병사든, 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었다. 그는 그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

묵랑은 휘의 말대로 태자궁 본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애초에 휘에게 범해진 후폭풍이 너무 거셌다. 그는 온 몸이 아파 도무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병환을 핑계로 본채 문을 걸어 잠갔다.

다행히 그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묵랑은 한결 나아진 몸 상태와는 반대로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군.’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동물적인 감이었다. 그렇지만 묵랑의 감은 적중할 때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지금처럼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은 결과가 확실했다.

밤이 되자, 묵랑은 일부러 몸이 좋지 않은 척하며 등불을 끄고 팔각형의 창에 달린 나무발을 내렸다. 그리고 일부러 보란 듯이 기척을 내며 침상에 누웠다.

이윽고 본채 안에 스르륵, 하고 움직이는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신기할 정도로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를 법했다. 자객 또한 휘의 실력을 알았기에 지체없이 처리하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휘가 아닌 묵랑이라는 점이 불행이라면 불행이었다. 자객이 침상을 향해 표적무기를 날렸을 때, 이미 묵랑은 그곳에 없었다.

본채를 어둡게 만든 건 자객을 방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그 편이 묵랑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림자에 숨어들어 이동하는 것이 특기였다. 그러나 반드시 그림자일 필요는 없었다. 단순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둠이 그림자일 뿐이었다. 만약 주변에 빛이 없다면, 그는 허공에도 숨어들 수 있었다.

게다가 묵랑은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번 휘에게 당한 것처럼 눈 자체가 가로막히지만 않으면 상관없었다.

무기가 자객의 손을 떠나자,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뒤에서 묵랑이 기척을 드러내기까지 단 삼 초도 걸리지 않았다.

묵랑은 역수로 쥔 검의 손잡이로 자객을 내리쳤다. 그러자 자객은 마치 치명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쓰러졌고, 묵랑은 쓰러진 자객을 발로 차 구석으로 치워놓았다.

*

밤이 지나고, 다시금 인시를 알리는 종이 들렸다. 묵랑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공격에는 한 치의 흠도 없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그는 자객의 숨이 멎는 것을 쭉 지켜보았다.

묵랑은 휘가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인적이 드문 이 시간에 오리라고 생각했다.

“용케도 죽지 않았군.”

예상대로 휘가 찾아왔다. 그는 자객의 시체를 보고도 특별히 놀라지 않았다. 차라리 그보다는 묵랑이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는 모양이었다.

“그래. 너도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 나를 찾아왔겠지. 자객을 처리한 건 잘했지만, 그저 처리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휘는 자객의 시체를 슬쩍 뒤집어보았다. 분명히 상처투성이이거나 피범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시체에는 그 흔한 혈흔 하나 없었다. 아무것도 몰랐다면 자객이 잠들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시체는 깨끗했다. 주변에도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고, 난투의 흔적도 없었다.

이건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었다. 휘는 묵랑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한 거지?”

휘가 묻자, 묵랑은 조금쯤 의기양양한 기분이 되었다. 그는 마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마치 바람이 불어가듯 대답했다.

“혈을 눌렀다. 처음엔 사지만 움직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움직임이 멈춰 숨을 쉬지도 못하고, 심장이 뛰지도 못해 죽음에 이르는 곳이지. 수련이 덜된 인간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니, 결국 네게 오는 자객들이란 이런 수준이란 말이군.”

묵랑의 말은 한마디로 휘가 수준 낮은 자객들만을 상대했으니, 결코 잘난 체를 할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사실 휘에게 오는 자객들의 대부분은 5황자 집안에서 사주한 일종의 용병들이었다. 대륙 제일의 실력자는 아닐지언정, 결코 얕잡아볼 상대 역시 아니었다.

그리고 묵랑이 짚은 혈 또한 쉽게 누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우선 무공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해야만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한 번에 강하게 내려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았다.

사실 묵랑 또한 말처럼 그리 쉽게 공격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걸고 세세하게 계획해 움직였다. 그만큼 그는 휘에게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다.

휘는 묵랑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부러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휘가 자객의 사인을 꾸며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전후 사정을 간파한 것으로 보아, 묵랑은 절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다.

‘허튼 자는 아니군. 저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라니, 천계에서 괜한 자를 보낸 건 아닌 모양이야. 그런데 어째서 내 앞에선 이렇게 허술하게 행동하는 거지?’

휘는 의문을 가졌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또한 드러내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존심 강한 휘가 나름대로 취하는 칭찬이었다.

*

자객의 뒤처리를 끝내니 어느덧 날이 밝아 있었다. 휘는 궁인들에게 태자 전하의 병환이 나았으니 평소와 같이 모시라고 전했다. 태자궁 본채의 문은 다시 활짝 열렸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맡게 된 역할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휘는 이제 궁인들의 생활방식을 간파하여, 빈틈을 만들어 2황자에 대한 뒷조사를 할 여유가 생겼다.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궁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휘가 일부러 환관으로 모습을 바꾼 이유였

다.

묵랑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모든 잡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으며, 궁인들 앞에선 일부러 사색에 잠긴 태자를 연기했다. 차라리 섣부른 말이나 행동하지 않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중추절 연회가 끝났다. 사흘간 이어진 연회 기간 동안 휘는 묵랑의 입을 빌려 태자궁의 문을 닫았다. 자신이 가기엔 위험이 따르고, 묵랑이 가기에 그는 아직 황실의 예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휘는 또다시 병환이라는 핑계를 꺼내 들었다.

어차피 황족의 대소사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일찍 혼인하여 궁 밖의 저택에서 생활하는 3황자 역시 오지 않았다. 휘는 수라간에서 가져온 월병을 먹으며 달구경을 하는 것으로 중추절을 기념했다.

차오른 달은 이지러지기 마련이었다. 만월의 빛이 점점 옅어지더니, 달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날이 찾아왔다. 신월이었다.

해가 지기 전, 묵랑은 휘를 본채로 불러들였다. 처음 있는 일이라 의아해하면서도, 휘는 순순히 말을 들어주었다. 지난번, 자객을 처리한 이후로 휘는 묵랑을 꽤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태자 전하?”

휘는 장난을 치듯 슬쩍 말을 비꼬아 물었다. 그래도 이전처럼 묵랑을 완전히 깔보는 기색은 없었다. 묵랑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 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10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이유를 물을 법도 하지만, 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좋을대로 해.”

붉은 노을이 창문에 발린 창호지를 물들이더니 이내 본채 안을 가득 채웠다. 아직 전부 내리지 않은 중추절의 주색 등롱이 노을빛과 어우러져 어쩐지 쓸쓸한 느낌을 자아냈다.

휘는 자신이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묵랑에게 슬쩍 눈길을 주었다. 이제는 저 비현실적인 외모도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휘는 묵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았다. 다만 언제나 시선의 끝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택이 나는 검은 진주처럼 고귀한 반짝임을 가진 두 눈동자가 자신을 봐 주기를 바랐다. 새하얀 손가락으로 자신만을 위한 거문고를 뜯고, 연분홍색의 도톰한 입술 사이로는 자신의 이름만 흘러나오길 바랐다.

휘는 그것이 결코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은 모두 손에 넣어야 했다. 옥좌도, 권력도, 미인도, 그리고 이제는 상대의 마음도 손에 넣고 싶었다. 천하를 호령할 제왕에게 그 정도는 당연했다.

그는 묵랑에게 첫눈에 반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수집가가 아주 귀한 보물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다. 미인의 연심이야말로 가장 구하기 어려운 보물이었다. 묵랑은 자신에게 매달려야 했다. 애를 태워야 했다.

아마 묵랑이 이 은밀한 소유욕을 알아차린다면, 새장에서 빠져나온 새처럼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릴 게 분명했다. 그놈의 상제, 상제…. 얼굴도 모르는 자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다.

상제의 옆이 묵랑에게는 돌아갈 안식처였다. 그래서 휘는 묵랑을 잡지 않았다. 차라리 목줄을 풀어주어야 묵랑은 상제 곁으로 도망가지 않을 터였다.

*

날이 어두워지자, 묵랑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계속 홀로 태자궁에서 지내며 자객들을 상대해왔었다. 그러니 하룻밤쯤은 그 혼자서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다.

문제는 도사리는 위험이 아니었다. 휘는 무언가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다.

묵랑이 휘를 찾아오고 난 뒤 그리 긴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었다. 계절은 여전히 가을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만월이 차오를 때 즈음하여 묵랑이 찾아왔고, 지금은 전부 차올랐던 달이 완전히 사라졌다.

휘는 문득 열어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을벌레가 찌르르르, 우는 소리만 태자궁의 정원을 메웠다. 곳곳에 걸린 등롱의 희미한 불과 옅은 별빛만으로는 태자궁을 전부 비추기에 부족했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돌로 만든 다리, 휘는 묵랑을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는 마치 달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홀연히 나타났었다.

'…가을이 찾아오니 쓸데없는 감상에 젖게 되는군.'

휘는 복잡한 마음을 단순히 계절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가 묵랑을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휘는 묵랑을 그저 소유하고 싶은 귀한 보물처럼 여겼다. 그렇다고 믿었다.

휘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날처럼, 죽간을 읽으며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았다.

묵랑은 축시가 절반쯤 지났을 무렵 돌아왔다. 달라진 점은 없었다. 수려한 얼굴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고, 단정한 옷이 더럽혀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 냄새가 은은하게 묵랑의 곁을 맴돌았다.

휘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묵랑은 물어볼 틈도 주지 않았다. 수척한 얼굴을 하고서는 침상에 걸터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휘는 사연을 물을 수도 없어 조용히 본채를 나왔다. 본래 남의 사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묵랑의 실력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답지 않게 왜 내심 신경이 쓰이는지, 왜 이렇게까지 타인을 배려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

다음 날이 되자, 묵랑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침 휘는 묵랑에게 용무가 있었기에, 기회를 보아 태자궁 본채를 찾았다.

"오늘 밤, 잠시 네 도술을 풀어줬으면 하는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네가 위험을 스스로 감당한다면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밤 동안 별채의 보초를 맡아줬으면 한다."

태자궁의 본채에서 조금 뒤로 돌아가면 그리 크지 않은 별채가 하나 있었다. 대나무가 빽빽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언뜻 보면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다. 묵랑은 그곳의 존재를 알았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몰랐다.

“뭐…, 상관은 없다만.”

묵랑은 딱히 아무래도 상관없었기에, 가볍게 승낙했다.

밤이 되자, 묵랑은 약속대로 서로에게 걸린 도술을 풀었다. 휘는 묵랑에게 먼저 별채로 가서 기다리라고 이르고는, 그를 본채에서 내보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군….’

묵랑은 별채를 향해 걸으며 생각했다. 사라졌던 달이 가늘게 웃음을 지으며 다시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아직 지상을 비추기엔 빛이 부족했기에, 묵랑은 손에 연꽃 모양의 등을 들고 있었다.

별채로 가는 길은 마치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는지 매우 황폐했다. 앞뜰처럼 갖가지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잉어가 헤엄치는 못이 있지는 않았다. 대신 몇 년은 제초하지 않았는지 잡초가 허리까지 무성하게 자라있었다.

‘태자궁 안에 대체 왜 이런 곳이 있는 거지?’

묵랑도 별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버려진 건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번듯했다. 누군가 건물 외부와 내부 전부를 관리한 흔적이 있었고, 깔끔한 등롱과 나무 발도 걸려있었다. 이렇게 보니 마치 의도적으로 겉모습만 보면 폐가처럼 보이게 만든 것 같았다.

묵랑은 대나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조금 뒤, 말소리가 들리더니 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남자 둘과 함께였다.

“아휴~ 또다시 태자 전하의 승은을 입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아무리 봐도 신분이 낮은 자들이 애써 화려하게 꾸민 모양새였다. 그들은 연신 휘에게 굽실거리고 있었다. 묵랑은 저들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다만, 휘가 지금 그리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별채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굳게 잠겼다. 주변은 다시금 적막에 휩싸였다.

묵랑은 여전히 몸을 숨긴 채 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천계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멀게만 느껴졌다.

어느덧 상제의 곁을 떠나온 지 보름이 넘었다. 염화국의 생활에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한들, 묵랑은 천계가 그리웠다. 그의 온몸이 상제의 거친 손길을 원하고 있었다.

“아아…. 전하, 좋아요…, 으응, 조금 더….”

갑자기 들린 소리에 묵랑은 화들짝 놀랐다. 저도 모르게 이어진 망상이 환청을 만들어낸 줄 알았다.

그러나 야릇한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이따금 철퍽, 하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묵랑은 그제야 이 별채가 어떤 곳인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묵랑은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이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휘가 그 남자들과 무엇을 하는지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상상하면 할수록 아랫배에 무게가 실렸다.

기분이 이상했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꼬인 감정이었다.

애초에 그는 휘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굳이 이야기하면 동업자에 가까웠다. 군신관계도 아니었으며, 연인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무리 서로 몸을 섞은 사이라고는 해도, 마음까지 주고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묵랑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 휘가 누구와 정사를 가지더라도 묵랑이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없었다. 휘의 남자 편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데 어째서….’

묵랑은 자리를 뜨고 싶었다. 더 듣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